

금융권 채용바람...광주은행 50여명 뽑는다

정원 80% 지역 출신 할당...22~23일 채용설명회 27~28일 서울서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 활용 도모

금융권에 채용 바람이 불면서 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은행이 지역인재로 신입행원의 80% 이상 채용을 채용 공고를 내는 등 하반기 은행에서만 2000명의 일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광주은행은 다음 달 2~9일 '하반기 정규직 신입행원 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50여 명으로, 정원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기로 했다.

모집 분야는 '중견 행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과 '초급 행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 나뉜다. 중견 행원은

지역인재, 디지털·ICT, 통계, 일반 인재로 구분해 모집하며, 이 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CT 부문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지남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개 방식으로 9월 2~9일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NCS, 상식),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22~23일 본점 대강당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은 오는 27~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시중은행 등 금융사 60곳이 참여하는 채

용박람회가 이 기간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광주은행 등 14개 은행과 금융공기업 10개사, 금융투자업계 9개사, 생명보험업계 4개사, 손해보험업계 8개사 등 총 60개 기업이 참여한다. BC·삼성·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7개사와 저축은행 2개사도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 인재를 찾는다.

이날 금융회사들은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블라인드 방식의 현장 면접으로 우수 면접자를 선발해 하반기 공개채에서 서류 전형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현장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화상 면접도 열린다.

같은 날 광주지역 구직자 46명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6개사 인사 담당자와 화상 면접을 한다. 60여 명은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3개사와 화상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등 주최 측은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financejobfair.co.kr)를 통해 사전 현장상담 신청을 받는다.

조계준 광주은행 인사지원부장은 "이틀에 걸친 채용설명회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합격 비결을 나누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초급행원을 모집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0.25 (+20.35)	↑ 금리 (국고채 3년)	1.10 (+0.01)
↑ 코스닥	607.01 (+12.36)	↓ 환율 (USD)	1208.30 (-2.70)

日 수출 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사진)은 20일 오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박석현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 세무관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광주청의 중점 추진업무와 추진방향을 제시해 업무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석현 청장은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One-Team으로 업무를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박 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



에 및 신고 내용 확인 제외 등 적 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청장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과 고의

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하반기 취업준비생 스펙 학점 3.37, 인턴경험 38% 잡코리아 630명 조사

올 하반기 신입공채를 앞둔 취업 준비생들의 평균 학점은 3.37점(4.5점 만점 기준)이었고 10명 중 4명은 인턴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6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채 지원자 평균 스펙'을 물어본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50.6%)는 유효한 토익 점수를 지니고 있었고, 토익 스피킹 등 영어말하기 점수를 보유한 취업준비생 비율은 28.1%이었다. 4명 중 1명(25.1%)은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전공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58.3%에 달했고, 38.1%는 희망하는 직무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인턴십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중소기업 40.0%, ▲중견기업 29.2%, ▲대기업 23.8%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10명 중 3명(29.8%)은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를 했다"고 말했다.

응답자 가운데 수시채용 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37.1%, 정기공채 전형 선호는 31.4%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참관한 뒤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찾은 삼성 이재용 "지금 씨앗 심어야"

광주교육센터서 취준생 격려...생활가전 혁신회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미래사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광주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날 광주사업장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Samsung SW Academy For Youth)' 광주교육센터를 방문했다. SSAFY는 삼성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총 180조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5년간 총 1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면서 교육생들에게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도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전·구미와 함께 전국 4개 SSAFY 센터 중 하나인 삼성전자 광주교육센터는 총 150명의 교육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강의실을 갖췄다. 2020년 총 3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1·2기 교육생 1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기 교육생 중 18명은 취업에 성공해 조기 졸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가전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이 부회장은 경영진에게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 가전제품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종갑(오른쪽)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나주 본사에서 청소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와 장학금 등 후원금 2000만원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한전 제공>

한전, 광주경찰청에 후원금 2000만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20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지방경찰청에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범죄 피해자와 교정이 필요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비, 장학금 등에 쓰일 예정이며,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후원해 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가정 폭력,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와 교정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현재까지 79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생활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지역 사회와 사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96